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경선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용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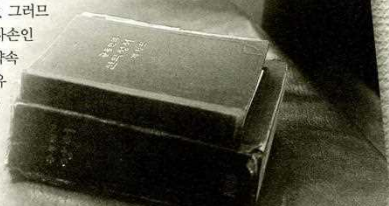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요건들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형성되어져 있다. 그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계보였다(느 7:62~64; 스 2:62~64; 대상 1~8장; 스 2,8 장). 조상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고, 또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였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도 그저 그분, 한 사람이 아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문화 속에 태어난 특별한, 한 사람이다. 예수님 역시 그의 조상의 역사와 가정 환경이 그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자기 나름의 추상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특성에 우리를 묶어주고 있다.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유대의 역사 안에 예수님의 뿌리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이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용납하기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임을 그의 계보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을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유대인임을 보여 준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바로 그 정체성과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약 안에 예수님의 뿌리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마 1:1,15~16; 눅 3:23,3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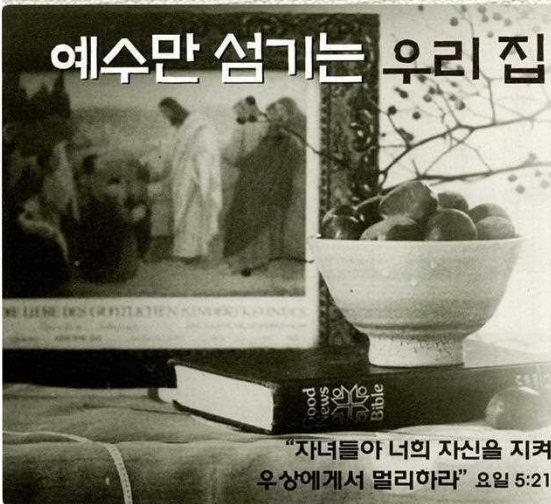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이라는 방대한 사역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것은 인간 세상을 위하심이다(창 10:5,10~11,30~32, 11:1~4,8~9, 12:1~3).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을 약속

하셨다(창 17:2~5). 아브람의 이름은 열방에게 주신 약속에 비추어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비록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특이한 역사의 선두에서 있을지라도, 실상은 세계적이며 우주적인 범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히 11:8,10,12; 창 15:5~6). 즉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한 민족이다(갈 3:26~29).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하는 것은 예수가 그 특이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에 속하여 있음을 알려준다. 예수는 메시아로서 이 뜻을 실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마침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의미를 가진 분이다. 4복음서 중 가장 유대적인 성격을 가진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을 많이 보여 준다. 예수의 긴 족보를 나열할 때에 마태는 많은 사람이 쉽게 넘어 갈 수 있는 다말, 라합, 롯, 밧세바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마 1:3~6). 그들명은 이방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다(창 38:15~16,24~25; 수 2:1,11~13, 6:25; 롯 4:17). 가처 없는 이방인이요, 외인들이었다(렘 2:3,5).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에 이들을 크게 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진정 유대인의 계보이며 내놓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우주적인 약속이 되는 예수는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메시아이며 열방의 메시아이다. 아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일 5:21

이번 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추석은 그라운 고향과 잘 만나지 못했던 친지를 만나는 기쁨이 있지만 반면에 영적인 함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우상숭배에 있었습니다(렘 20:8).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범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따라 행하며 십자가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딤후 3:18).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추석이 되도록 영적 준비를 온전히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제사에 참여하지 말고, 부득불 해야 한다면 조상신에게 절하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고전 10:14). 불건전한 오락이나 연행을 삼가시고 온 가족이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딤후 4:2).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5:13~14). 소금과 빛을 소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우리 자체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의 소금 됴과 빛 됴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매일 새벽기도회를 비롯한 수요예배와 금요찬양집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모본, 본지 7면

WHY FISHERMEN?

⁽¹⁶⁾As He was going along by the Sea of Galilee, He saw Simon and Andrew, the brother of Simon, casting a net in the sea; for they were fishermen. ⁽¹⁷⁾And Jesus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¹⁸⁾Immediately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¹⁹⁾Going on a little farther, He saw James the son of Zebedee, and John his brother, who were also in the boat mending the nets. ⁽²⁰⁾Immediately He called them; and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 in the boat with the hired servants, and went away to follow Him. (Mark 1:16~20)

God sent His only Son, who created this world by just His words, to save humanity from the curse of sin. Death had all power on this earth at that time, and no one had even the slightest of chance or any hope for eternal life. There was no answer or solution to the sin problem. Hence, Jesus' mission of salvation was of the greatest importance. At the start of His ministry, Jesus could have chosen anyone to help serve Him as His disciples. He could have picked the richest, strongest, or smartest of people, but He did not. He purposefully chose fishermen. Why did Jesus want fishermen instead of high religious or official leaders?

Jesus chose fishermen because He knew that the cultured, educated, and powerful people of this world would call the gospel foolishness. High minded people have high pride levels. They're too proud of their knowledge. Their reputation, materials assets, and family are more valuable to them than God. So instead of picking the marvelous for His great ministry, Jesus Chose the ordinary and poor to do God's work.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 For since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through its wisdom did not come to know God, God was well-pleased through the foolishness of the message preached to save those who believe. ... but we preach Christ crucified, to Jews a stumbling block and to Gentiles foolishness, but to those who are the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1 Cor. 1:18,21,23~24). Indeed, it is far more difficult to build something where there is already a structure. Consider the young rich man who walked away from Jesus' calling. Jesus told His disciples concerning him, "Truly I say to you, it is hard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Again I say to you,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Mt. 19:23~24). Jesus does not say that a rich man could not be saved, but only that for him, it is more difficult, since such a person seldom senses his personal need as readily as a poor man does. Consider the old rich man, who told himself, "Soul, you have many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o come; take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 (Lk. 12:19).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now who will own what you have prepared?" (Lk. 12:20). Consider also Moses, who had great wealth and power during his earlier years in Egypt, "Moses was educated in all the learning of the Egyptians, and he was a man of power in words and deeds" (Ac. 7:22). His power caused him to fall, but after his fall, while he was living as a poor shepherd, God called him. The message of Jesus Christ is so simple,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Mk. 1:15). Sadly, most

humans value earthly treasures over heavenly ones. Earthly success is misconceived as sufficient, and often proves disastrous in the end. The gospel or good news is easy to understan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Whoever believes this truth Jesus calls His disciple.

Jesus chose fishermen because He wanted to show that God can use anybody if they simply make themselves available. Jesus called not on those who think they can build themselves, but on those whom He can become the very foundation of their life. The greatest mis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 of the Lord is that He wants what we think is good/best or what we already have to build on. His building must not be built on human foundations, but solely upon God's grace. 1 Corinthians 3:10~11 says, "According to the grace of God which was given to me, like a wise master builder I laid a foundation, and another is building on it. But each man must be careful how he builds on it. For no man can lay a foundation other than the one which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Jesus does not want us because of who we are or what we have, but Jesus wants us for what He can make of us. Jesus told Simon and Andrew,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Mk. 1:17). It's our willingness to come to Him and leave everything behind that allows Him to build a superstructure on the foundation He has laid. To become fishers of men depends on the Lord. Fishermen work together, never alone. It's a team approach. Andrew, Simon, John, and James always worked together with Christ. Being a fisher of men is hard work, and each individual is required to contribute their talent (1 Cor. 12:10). It's a busy profession that works well without a bureaucratic system. It's not for the lazy or those with nothing to do. Everyone who has a heart for the Lord, and who is eager to please Him will find great satisfaction. The path is not easy, but it is worthwhile.

My dear friends, Jesus called Simon, Andrew, John, and James to be His disciples. These fishermen left their jobs and families to follow Jesus. What a privilege! What a wonderful opportunity! They were ordinary men given extraordinary responsibilities. Jesus is calling after you. He wants every Christian to be fishers of men. He asks us to spread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Mt. 28:18~20). How can we do that if we don't all work together? Let's trust God with all our hearts, and allow His Holy Spirit to work wonders in each one of us. Please don't let your knowledge, which will eventually be done away with (1 Cor. 13:8), or earthly successes get in the way of God's work.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His pathway will lead you to eternal life. Amen. ■

왜 어부인가?

⁽¹⁶⁾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¹⁷⁾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¹⁸⁾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¹⁹⁾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끄는데 ⁽²⁰⁾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뚝판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16~20)



김성관 목사

하나님은 인류를 죄의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죽음은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영생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이나 기호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죄 문제에 관한 한 어떤 해답이나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너무도 중대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나 제자로 삼아 자신을 돕도록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부유하고 힘 세고 영리한 사람들을 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어부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위 종교지도자나 관료들 대신 어부들을 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나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택하신 이유는, 세련되고 지적이며 권력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어리석게 여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고상한 사람들은 자존심의 수준도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에 대해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성, 물질적인 재산, 가족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훌륭한 사람 대신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께 일을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끄러움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18, 21, 23~24). 사실 기존의 권제에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들고 돌아섰던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에 대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 19:23~24).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쉽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눅 12:19).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눅 12:20). 예감에서 보낸 인생의 초년기에 모든 권세와 부를 가졌던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식량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행 7:22). 그의 능력이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한 후 가난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매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 1:15).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보다 이 땅의 보화를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성공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오해하는데 결국은 불행으로 끝을 맺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 곧 복된 소식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예수님은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나.

왜 어부였을까?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자신을 드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기조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원리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주님께서 훌륭한 사람이나 최고, 또는 이미 이루어 낸 성과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건물은 인간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10~11은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히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1:17).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와 주님이 닦아 두신 기초 위에 주님께서 건축물을 세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부들은 결코 혼자자 아니라 함께 일합니다. 그것은 팀 사역입니다. 안드레, 시몬, 요한, 야고보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일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로 헌신해야 합니다(고전 12:10). 그것은 관료 체제가 없이 운영되는 바쁜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나 할 일이 없는 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큰 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어부들은 자신의 직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들은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마 28:18~20). 우리가 함께 협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결국은 사라져버릴 자신의 지식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게 하십시오(고전 13:8). 자기를 부린다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의 길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45

예수께서 고민하시며
슬퍼하신다

있으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모습과 그 내용이다. 마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라”(막 14:33)라고 기술하였다. 또한 예수님도 세 제자에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막 14:34)라고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3년 여의 사역을 통해서 보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예수님은 항상 당당하셨다. 당시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종교지도자들, 정치가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서슴없이 말씀하곤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천국복을 전하셨고, 병고침은 물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다. 심지어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였다.

그런데 왜 마가는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과 말씀을 부각시켰는가? 혹시 마가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마태도 그 정도만 달리 할 뿐 마가와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술하였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라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마 26:37~38). 히브리어 기자는 더 명료하게 기술하였다. “그는 육체에 게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7).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구약성경의 시편이

이미 예언했다는 점이다(시 22:1~2, 43:2, 55:1~2, 116:10,15).

‘심히’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심각하게 예수님이 고민하시며 슬퍼하신 이유에 대해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종교지도자들의 흉계 때문이거나 제자의 배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에 당할 일에 대해 이미 예고하실 정도로 다 알고 계셨다(막 14:11,20).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으며 죽을 거라는 것 또한 제자들에게 이미 밝히셨다(막 14:24,27).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도 예수님이 심각하게 고민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셨는가? 그 답은 죄 때문이다(요 1:29). 물론 예수님은 완전 무흠하셨다. 따라서 죄 문제는 예수님의 죄가 아닌 우리, 곧 나의 죄다. 예수님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온 몸으로 느끼셨다(갈 3:13).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정도로 인류의 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분명히 보여 주셨다(고후 5:21).

그러나 매우 심각한 예수님과 달리 세 제자는 심각하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은 고민하시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슬퍼하고 계신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세 세상의 넓은 길을 선호하는 우리를 보시며 울고 계신다. 지금 우리는 울어야 한다(눅 23:28). 모든 초점을 메시아의 죽음에 맞추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 드러난다. 그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는 죄, “나는 죄인입니다!” 집심으로 회개할 때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사 53:1). “큰 죄에 빠진 뒤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나를 오라하시니 주께로 가져 갑니다.”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왕이 오신다(요한계시록 19:11~21)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시작된다(계 19:1~10).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과 함께 모든 무리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할렐루야’로 찬양한다(‘하나님을 찬양하라’의 의미인 ‘할렐루야’가 히브리어 원음 그대로 사용된 곳은 요한계시록 19장이 유일하다). 그리고 왕의 오심을 말한다. 왕이 오시면 좁고 험한 십자가 길을 걸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살전 4:16~17; 계 19:9).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받게 될 것이다(계 22:12; 사 40:10). 이 날 구약의 예언은 완벽하게 성취된다(마 21:5,7,9).

● 왕의 도착

왕의 도착에 대해서 왕은 이미 알려 주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또한 왕이 올 때 일어난 큰 환난에 대해서도 상세히 가르쳐 주셨다(마 24:21,5-9).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

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리라”(계 19:11~13).

● 왕의 군대

왕은 군대와 함께 오신다. 그들은 이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계 19:14). 원래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지만(사 64:6)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메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계 5:9). 왕의 군대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보혈과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다.

● 왕의 분노

왕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에게 오라”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기회를 거부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귀영화를 좇기에 바빴다. 이들을 향해서 왕은 분노한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것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들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계 19:15~16).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기회는 없다.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끔찍한 심판뿐이다. 공중에 나는 모든 세대에 살을 뜯기게 되며(계 19:17~18), 유향불 붙는 못에 던져지며 그 의 남은 사람들도 겁에 죽임을 당한다(계 19:20~21). 그들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돌이킬 수 없는 왕의 분노를 샀으며, 영원한 고통과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행복함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가?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 것 얻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자. 이제 곧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이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설을 때 후회해야 소용이 없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모든 초점을 맞추자. 이를 위해서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말씀을 붙들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미래를 여는 선교 견신회

중등부 6팀

예수님을 전하는 데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 지난 여름,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온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을 만났다.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기대한 것보다 큰 수확을 가지고 돌아온 믿음의 용사들의 특색 있는 이야기를 들어 보자.

Q. 선교팀이 어떻게 꾸러졌고 어느 곳에, 어떻게 다녀오셨나요?

• 중등부 학생 6명과 저를 포함한 교사 3명, 총 9명이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있는 나라로 불교국이며, 베트남어를 쓰는 열대몬순기후의 무척 더운 나라입니다. 저희는 수도인 하노이의 북서쪽 푸 토성 비에피시에 숙소를 잡아 매일 1~2시간 거리의 외곽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오는 일정을 반복했습니다. **현준봉 교사**

Q. 중학생인데도 선교를 많이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 팀장님은 이번이 11번째 선교이며 저희들은 그에 비하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단기선교를 2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 다녀왔습니다. 저는 중매부터 별 거부감없이 매년 갔었는데, 그게 바로 온여가 아닐까요? **김정영**

Q. 어른들과 청소년들의 선교의 차이가 있었나요?

• 어른들은 보통 8월 9일 정도의 일정으로 선교를 다녀오는 데 비해 아이들은 보통 일 주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 일정을 짧게 잡는 편인데 사실 음식이나 기후, 환경 등 적응력은 학생들이 더 뛰어나더군요. 힘들어도 불평 하나 없이 힘이 넘쳐서 선교지에서 마구 뛰어다니던 걸요.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라 선교의 미래가 아주 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대선 교사**

Q. 선교 일정이 짧게 느껴진 이유가 있을까요?

• 네, 이번 선교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더 많이 전도하지 못한 것이예요. 그래서 다음 선교가 더 기다려지기도 해요. **황문현**
•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5박 6일 안에 다 쏟아부다 보니 힘이 들거나 짜요. 조금 더 여유있게 전할 대상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선교기간 내내 지루하지도 않고 생동감 넘치게 전도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최유진**

Q. 선교지에 대한 기도제목이나 나누고 싶은 온여가 있다면?

• 미스킴이라는 영어를 말하는 자매들을 만나서 사랑과 속박, 식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현지에서 준비된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 유치원에 갔을 때 찬양을 시작하니 울던 아이가 울음을 툭 그치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다른 아이들이 조용히 시키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기뻐합니다. **황문현**
•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제 삶에 활력이 더욱 넘칩니다. 선교지의 사복 경찰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윤지영 교사**
• 아무런 걱정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 다. **김은혜**
•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고, 성직이나 선교에 임하는 자제 등이 더 나아진다고 주위에서 말씀해 주시고 합니다. **김정영**

Q. 단기선교로 4행사를 준비하셨다고요?

• 단기선교를 가서 우리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 몸 된 공로로 나가가 한다. **김예진**
• 단기간에 기도를 아주 많이 하며 선교를 하고 교회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최유진**
• 단단히 마음을 먹게 하시고 기쁨을 주셔서 선교를 다녀오게 하신 교회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현준봉 교사**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

• 이번이 태어나서 첫 선교입니다. 친구와 권유로 가게 되었지만 다녀온 후 믿음이 생긴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 선교지에서 받은 성령충만했던 감격을 잊지 않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김예진**
• 주님이 항상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에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평생시에도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안 겠을 더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김은혜**
•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현지에 예비된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대선 교사**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선교 팀훈련이 시작되었다. 그저 순종함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내게 합심기도 제목으로 '선교지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제목'을 붙들게 하였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받은 영혼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은 통하지 않지만 강렬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확신 모습들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드디어 선교지 도착! 첫 오전 사역을 앞두고 그간 심한 빈혈로 연약한 육신을 부인하며 이 곳까지 왔건만 아침에 빈혈 증상으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속은 메스꺼워 울렁거리고 힘이 빠져만 잤다. 갑자기 나고 격정이 되고 수많은 생각이 내 머릿속을 오갔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주님의 도구로 이 곳까지 왔어요. 사용해 주셔야죠. 팀원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몸을 구부리고 괴로워하는 나를 위해 팀원들은 기도해 주었다. 놀랄게도 몸이 회복되고, 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절로 나왔다.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겪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기적 같았다. 기쁨 가운데 힘이 더욱 넘쳤다.

다른 가정으로 기도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중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니? 내가 널 구원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곳 선교지에 너를 세운, 그 이상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 주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라는 귀한 보물을 쥐고 다른 보물을 찾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도구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 육신 채우려 더 요구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구원을 통한 희 여감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서 행하심을 믿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후 사역은 감사로 감당하였다.

지금도 주변에서, 교회에서, 많이 회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다시 한 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함을 알게 하신 기쁨과 감사의 선교 사역이었다.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나를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듯이, 비록 내 눈으로 선교지의 영혼들이 풀이켜 회개함을 보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들의 일생을 주관하실 줄 믿는다. 이제 내게 남은 일은 무지하고 완악한 나를 다시금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사람을 믿고 회개하며 그저 감사하는 일뿐이다.

(이시은(집사, 16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5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7일(금) - 9월 23일(목)	청년1부 5팀	이신동
9월 17일(금) - 9월 24일(일)	충원북지리 1팀	윤숙희
9월 18일(토) - 9월 25일(일)	예배당부 2팀	변희대
9월 18일(토) - 9월 25일(일)	청년2부 1팀	최창하
9월 18일(토) - 9월 25일(일)	17교구 4팀	김영록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7일(화) - 9월 15일(수)	3교구 1팀	박창서
9월 7일(화) - 9월 15일(수)	11교구 4팀	김복수

주님이 진짜 복음이 진짜

허락된 놀라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은 알고 있었지만 그 구원에 담겨진 놀라운 진리를 구절 구절 소상하게 말씀하셨고, 참된 믿음으로 나를 세워가셨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롬 5:20)는 말씀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의 은혜는 한없이 커져만 갔다. 이런 '연약한 자'를 위해, '죄인'을 위해, '죄'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보여 주셨고, 그 주님의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를 보여 주는 분명한 사건이 되었다.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흐를수록 내가 받은 구원 자체보다는 그러한 죄인을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다. 내가 오늘 찬양하는

것은 자유함을 얻은 기쁨 때문만은 아니다. 처음에는 그 기쁨이 컸지만 이제 내 노래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진짜입니다. 복음이 진짜입니다."

로마서 후반부는 끊임없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자기 부인의 삶'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각인되는 시간들이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유대인과 같은 어려서부터 가문대 빠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셨다. 역사 가운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유대인 바울의 입으로 선포될 때 전진자 하나님과 지혜와 권능을 참으로 찬양하게 되었다. 그 무한하신 사랑과 지혜, 그 앞에 하나의 점보다도 못한 여전히 무지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부분이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죄인인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아래에서는 그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도구가 됨을 깨닫게 된다. 죄를 자랑할이 아니요, 죄인에게 오셔서 품어 주신 주님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주님이 좋다. 말씀이 귀하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의 은혜가 감사하다.

정성원(목사, 19교구)

천사의 얼굴과도 같은 그 모습 속에



8월 14일 토요일은 사랑부 여름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랑부의 일꾼들은 무척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랑부 친구들은 소풍을 눈앞에 둔 아이들처럼 삼삼오오 모여 설레는 눈빛으로 사랑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웃음으로 인사하며 여름수련회에 대한 저들의 이야기 꼬마리를 쏟아냅니다. 어느덧 여름수련회 시작 시간이 되어 사랑부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수련회의 첫 시간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 잔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선 처음 온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사랑부 안에서 서로 나누고 싶은 모든 것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부 친구들의 고민이나 신앙 문제를 말씀으로 명쾌하게 해결받은 시간 또한 매우 유익·상쾌·통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맛있는 점심 시간. 선생님들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점심 식사는 아마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과도 같은 꿀맛이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입맛이 없던 친구들도 점심을 어찌나 잘 먹던지 그 모습을 보지만 하더라도 배가 불러했습니다.

자, 여름수련회의 하이라이프! 바로 천로역정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 훈련인데 세속식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 기도, 인도라는 구성으로 사랑부의 젊은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사랑부 친구들은 각 코스에 입찰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지막 폐회때 매 목사님의 설교로 "이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표어를 외칠 때 사랑부에 있는 모두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은 그 모습 속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였고 천국이 보였으며 다시 오실, 그리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고전 13:12-13).



유민석(교사, 사랑부)

나를 채운 주님의 은혜

"주님, 이번 주 토요일에 에바다부 성인반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매해 수련회가 있고,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에바다부 성도님들은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도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주변 환경을 불쌍히 주셔서 수련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련회를 삼 일 앞두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린 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라 아니라 에바다부 교사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드린 기도였다.



여러로부터 많은 수련회에 참석해 온 나는 이번 수련회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갖기가 어려웠다. 토요일 아침, 전달부터 내리는 뭍소리에 잠을 설쳐서 그런지 머리가 아팠다. "네가 가지 말게!" 하는 생각이 날 유혹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 하는 생각이 날 일이었다. 육체의 유혹을 겨우 이겨내고 교회를 나왔다. 내가 맡은 일은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신 성도님의 명단을 파악하고 나서 이름표에 이름을 적어드리는 것이었다.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성함을 물으며 이름을 적어드렸다. 에바다부에서는 매주 성경 말씀 1절을 쓰는 '성경 쓰기'를 모든 성도님이 참여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성도님들이 적어 내신 '성경 쓰기'를 종이로 모아서 정리하고 스티커로 표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의 이름만 알 뿐 얼굴과 연결시킬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성도님들을 얼굴로 확인하면서 한 연흔 한 연흔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에바다부의 성인반은 교구와 같이 크게 청년반, 여성교로, 남성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이 많으신 성도님이 많은 편이다. 그런데 수련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니 모두들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퀴즈를 풀고, 게임을 하셨다. 회개예배와 폐회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들에 관한 퀴즈를 풀었다. 그리고 특별히 하가되어 아름다운 수와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경해 보는 게임도 했다. 나는 이 모든 프로그램의 뒤에 서서 보조 역할을 담당하며 은혜를 받았다. 그런 내가 나의 의지와 감정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바다부 수련회에서 내가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고, 성도님들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내게 맡겨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여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 "역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채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김소희(교사, 에바다부)



무엇을 감사하는가?

(시편 103:1~5)

다윗은 날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자신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시 103:1~2). 여러분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자신의 영혼에 되새긴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그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고 불평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날마다 누리는 축복에 대해 감사할 것을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주신 많은 은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현실의 삶에 감사하자

우리는 삶의 기본적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 거할 처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와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순종적인 자녀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을 주신 것과 그 뜻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딤후 3:1).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자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롬 8:28). 이 말씀을 전심으로 믿는다면 자신이 정말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예

주석 가정예배

- ◆ 찬 송 325장 다 합 계
-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합 계
- ◆ 말씀본독 시편 103:1-5 인 도 자
- ◆ 말씀신조 무엇을 감사하는가? 인 도 자
- ◆ 통성기도 다 합 계
- ◆ 찬 송 588장 다 합 계
- ◆ 주기도문 다 합 계

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살전 5:18). 삶의 폭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을 알고 있고 그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롬 5:3~4, 8:28).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시 103:3~4).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삶에 감사하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고후 9:15).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케 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요 3:16). 여러분은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총의 선물은 영생입니다(엡 2:8~9; 롬 3:23~24, 6:23).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의 매순간마다 감사하게 만들 것입니다(요일 5:12~13).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를 감사의 찬양을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더욱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고난의 때를 더 잘 견딜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이런
추석에는
가정예배
(추모예배)로...”

유교 문화에 바탕을 둔 우리 민족에게 설이나 추석 때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유교 전통에 따라 행하던 제례를 대신하여 추모예배를 드려왔다. 하지만 추모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언가 잘못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먼저 추모예배 자체의 문제이다. 추도(追悼)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여 슬퍼함'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 천국에 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할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할 일이다. 따라서 '추도'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 추모(追慕)라는 말이 비교적 적절하다. 추모란 '죽은 이를 생각하여 그리워함' 혹은 '죽은 이를 사모함'의 뜻을 가진 말로, 추도보다는 훨씬 의미가 적절하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의 중심이 죽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임을 잊지 말자.

*추모예배 시 주의사항

-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추모예배 시 고인만을 추모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 무엇보다도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예배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 추모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삶을 위한 은혜를 구해야 한다.
- 꽃병을 커거나 향을 피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 특히 음식은 예배 전에 지려놓아서 안 되며, 준비한 음식은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증언교회의 한 거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051	김동규	양육반	10	한민교
1052	신소영	양육반	18	한민교
1053	하상우	양육반	21	김영희
1054	최미현	양육반	24	이기순
1055	노진호	양육반	8	이숙동
1056	임우식	초등1부	7	강소영
1057	김태욱	적응반	17	이종훈
1058	남태준	초등2부	17	이종훈
1059	남예찬	초등2부	17	이종훈
1060	김기환	통신반	1	신정호
1061	이건용	초등1부	13	조윤성
1062	장정원	양육반	17	김동훈
1063	장서원	양육반	21	이정화
1064	김재현	양육반	11	이은은
1065	문민선	적응반	1	문민선
1066	한철수	통신반	19	최순금
1067	이성욱	양육반	22	정우성
1068	백준현	양육반	15	정대훈
1069	서태현	양육반	21	서태현
1070	홍기웅	초등2부	24	유복심
1071	이유진	통신반	1	이유진
1072	신재식	양육반	11	남주옥
1073	한광정	적응반	24	백미자
1074	김효정	대학부	3	백미자
1075	지현구	통신반	20	강영자
1076	김경옥	통신반	20	지정민
1077	이성호	양육반	12	이민용
1078	김동현	대학부	1	김미자
1079	김기영	양육반	15	나은은
1080	김태환	적응반	13	유복심
1081	박은지	대학부	25	박은지
1082	이영원	예비대부	25	이영원
1083	김정숙	양육반	7	박은지
1084	이종희	예비대부	25	오동희
1085	한수정		12	윤신주

